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 정상화에 관한 담론

강신복* · 신기철**

I. 서 론

한 나라의 장래는 그 나라의 청소년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청소년이 한 나라의 미래를 담당해 나아갈 주역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자주 변화하는 교육 정책,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 고학력위주의 사회풍토, 지나친 교육열과 가족의 기대 등으로 인해 무거운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다. 특히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 성장에 따른 사회 변동은 지나친 상업주의에 의한 불건전 유희 문화를 가져와 성장기의 청소년으로 하여금 가치관의 혼란 및 갈등과 인간성 상실 등을 초래하고 있다(권이중, 1992; 김대연, 2001; 이제홍·백광, 1995). 즉, 이러한 문제들은 청소년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학업 포기, 가출, 음주, 약물 남용, 미혼모의 증가, 비행이나 자살 등의 사회 병리적 현상을 유발시키고 있다(김찬규, 2001).

이와 관련하여 여러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청소년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제홍(1994)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숙하여야 할 청소년들이 자신의 욕구를 자연스럽게 발산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 혹은 활동거리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저항과 회피라는 청소년 특유의 정서적 욕구가 무제한적으로 개방되고 통제되지 않은 형태로 충족될 경우 그것이 불건전한 향락적 대중행락으로 전락되거나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 같은 일탈적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흥구와 박성준(1999) 역시 청소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여가의 부적절한 활용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스포츠 활동과 같은 건전한 여가활동을 보장해 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편리하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 공간 및 시설의 양적·질적 확충 및 개선과 함께 청소년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 마련이 중요하다.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박사과정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노력은 사회 제반 영역에서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국민생활체육협의회, 1997), 청소년기가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준비하는 예비 단계이고 왕성하게 학습이 이뤄지는 시기라는 점(한국청소년개발원, 1993)을 고려할 때 학교체육을 통해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체육 및 스포츠 활동은 건강한 생활을 통한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며, 특히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신체발달과 체력 향상은 물론 운동능력 증대, 그리고 사회성과 도덕성 함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체육은 바람직한 가치 및 태도 형성의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구창모, 1999; 임중호, 1999). 따라서 체육은 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전인의 양성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널리 인정받음으로써 학교교육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교과로서 그 위치를 확고히 해 왔다(강신복, 2003a).

그러나 최근 지식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공교육체제가 흔들리는 현 시점에 이르러서는 학교체육의 정체성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강신복, 2002; 김상국, 2002; 류호상, 1997).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오늘날의 청소년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함에 있어서 체육 프로그램을 통한 접근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학교 현장에서의 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점차 관심 영역에서 밀려나는 요즈음의 사회적 분위기와 교육적 풍토는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결국 학교체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청소년을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하기 위한 일차적인 과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 및 사회적인 인식 전환·지원과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직접 지도하는 체육교사의 책무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유정애,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학교체육의 전개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요즘 청소년들의 문화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학교체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점들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실천적 수준에서 학교체육의 바람직한 전개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II. 청소년기의 특징과 청소년 문화

1. 청소년기의 특징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9-24세로서 2000년 현재 1,126만명으로 추계되며, 전체 인구의 약 27%를 차지(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참고)하고 있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과도기 인구로 규정되고 있다.

청소년의 특성과 육구는 다양하나 대체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언급하고 있다(문화체육부, 1994; 이제홍, 1994). 먼저, 청소년기에는 신체적인 면에서 급격한 성장과 변화하는 특성이 나타난다. 신체의 빠른 변화 속도로 인하여 신체발달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심리적으로 긴장이 야기되며, 근력의 증가로 인해 활동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신체활동의 욕구와 더불어 휴식의 필요를 느끼게 된다.

둘째, 정신적인 면에서 지능의 발달로 추상적 사고능력과 논리적 추리능력이 신장되며, 상상력의 발달로 인해 문학이나 예술에 대한 흥미와 동경을 하게 된다. 또한 철학적인 사고가 짝트게 되므로 선악의 인식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가치기준에 대해 탐구하며, 추상적인 경향을 표명하는 시기로서 취미생활의 욕구, 지적인 욕구 등을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측면에서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을 형성하여 안정감을 찾고, 집단의 가치와 행동양식을 동일시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소속의 욕구, 우애, 협동의 욕구, 남에게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된다.

2. 청소년 문화

문화라는 개념은 학자들마다 견해를 달리하나, 본고에서는 문화를 특정집단의 인간이 공유하고 학습하는 것으로서 외현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그 행동 속에 내재하는 일종의 사고방식과 의식 및 정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기초 위에서 논의하고자 한다(김영철, 1999). 따라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여가생활, 가정생활 등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정서상태, 행동양식, 의식, 가치관의 특성과 문제를 중심으로 청소년 문제를 탐색해 본다.

청소년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즉, 기성세대가 당위(理)의 세계관과 자아관에 의해 지배받는다면, 청소년들은 당위(理)를 체득해 가는 과정에 있으며, 존재에 더 큰 가치를 둔다(이건만, 1999). 우선 외형적으로 보면,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훨씬 풍요롭고, 개성적이며, 멋에 대한 여유까지 가진 운 좋은 세대로 보인다. 그러나 심층적으로 보면 불만과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고, “어른들은 몰라요”라는 말로 대변되는 소외감과 세대차를 어느 때보다 크게 느끼고 있으며 저항과 이탈 또는 폭력과 지도 거부로 표출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이 느끼는 생활의 불만과 스트레스의 원천은 학교 생활문화에서 연유하는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권위주의적, 경쟁적, 획일적인 학교교육 구조로 인하여 청소년으로서의 삶의 권리를 유보하고 사춘기의 정상적인 발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체험세계가 생략된 채 살아가야 하는 세대로 비춰지고 있다. 또한 주지주의적 교육풍토 속에서 입시위주의 교과 학습을 강요당한 채 심신을 건전하게 단련할 만한 활동과 여가

의 기회를 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심리적으로 억압적인 소외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값싸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상업적 대중문화와 가상세계의 각종 오락물들을 찾고 있는 실정이다. 즉, 청소년들은 TV나 비디오방, 오락실, 노래방 등을 통해 나름대로 여가를 갖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생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여가 활동은 지나친 상업주의와 영합하여 자칫 정신과 마음에 해로운 영향을 끼쳐서 청소년의 건전성을 해칠 소지가 있다.

결국, 오늘날의 청소년 문화는 왜곡된 교육 풍토와 학교교육 구조 안에서 청소년들이 나름대로 그것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과생되는 스트레스와 욕구 불만 내지는 일탈욕구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청소년 문화를 청소년의 시각에서 이해해야 하며, 동시에 그 원인이 오늘의 학교교육의 구조와 대중문화의 성격, 그리고 이것들과 연계 속에서 전개되는 청소년들의 삶의 성격에 있음을 직시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방안은 청소년들이 자유로움 속에서 자신의 심신을 단련할 수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가장 효과적으로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은 학교체육이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학교요, 체육 및 스포츠 활동은 청소년들의 왕성한 활동 욕구 및 표현 욕구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III. 학교체육에 대한 진단과 문제점

1. 학교체육에 대한 진단

일반적으로 체육의 영역을 구분할 때 그 특성상 학교체육, 사회체육, 전문체육으로 나누는데, 이들 세 영역간에는 유기적이며 상보적인 관계가 성립된다(강신복, 2002, 2003b). 이중 학교체육은 가장 근본적인 토대로서의 역할을 하며, 따라서 학교체육이 잘 이루어지면 생활체육이 활발해지고 나아가 전문체육이 발달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체육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된다면, 청소년들은 학교 안팎에서 체육 및 스포츠 활동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어 심신을 단련하는 동시에 여가를 건전하게 활용하고, 나아가 사회체육 발전을 이끌어 갈 주역이 될 것이다. 또한 이 같은 방식으로 활성화 된 학교체육과 사회체육의 토대 위에서 기량이 뛰어난 우수 선수 발굴이 용이해질 것이다. 이처럼 학교체육의 활성화는 곧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자아실현을 조장하는 데까지 이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학교체육은 그 실태를 진단하여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위기'라 할 수 있다. 이 위기는 거시적으로는 한국의 교육 정책과 교육의 풍토에서 비

못된 것이며, 미시적으로는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이행되지 못하는 학교 현장의 여건과도 관련되어 있다.

학교체육이 위기에 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학교교육의 목표를 전인교육 혹은 자아실현이라 명시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사회경제적인 지위의 성취를 목표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학교의 기능과 역할을 온통 성적, 입시, 상급학교 진학에만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이건만, 1999). 심지어 일반 교육학 학자들의 학교체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학교체육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었다. 예컨대, ‘수요자(학생) 중심’ 또는 ‘선택 중심’을 표방하면서 일단의 일반 교육학 학자들이 구안한 제7차 교육과정이 도입·시행되면서 학교체육의 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과정에서 체육교과의 수업 시수를 줄인데다가 체육교과를 선택 과목제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체육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덧붙여 최근에는 체육교과를 포함한 예체능 교과의 성적을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내신 성적에서 배제하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까지 언론에까지 회자되면서 학교체육은 교사 직전까지 물리는 위기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청소년들은 과중한 학업 부담을 지면서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상급 학교 진학에 필요한 과목들에만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체육교과를 위시한 예체능 교과를 배워야 할 필요성 인식이 약화된다. 이와 같은 정책적 배경 하에서는 설령 체육교과가 선택되었다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체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이와 더불어 학교체육의 위기를 초래한 데에는 교육의 제도적·정책적 요인뿐 아니라 학교 내부적으로 체육 프로그램의 부실한 운영도 한 몫을 해 왔다. 류태호(1998)는 지금이 학교체육의 위기라면 위기의 일차적인 책임은 다름 아닌 교사에게 있다고 했다. 김윤희(2003)의 연구에 의하면, 운동기능이 낮은 학생들에게 체육은 싫어서 회피하고픈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와 같은 인식이 형성되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 중의 하나는 교사가 청소년들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들어주려 하지 않은 채 소외시키는 것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 학교체육의 문제점

앞 절에서 기술된 학교체육의 실태 속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함축되어 있다. 학교체육의 문제점을 나열하려면 무수히 많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몇 가지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체육교육에 대한 왜곡된 인식

체육교육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행정 당국 및 일선 학교의 체육교육에 대한 왜곡

된 인식으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학교장 및 체육교사의 체육에 대한 왜곡된 가치인식 및 사명감 결여로 인해 체육수업은 다른 교과목 또는 각종 행사로 대체되고 있다. 특히, 중·고 3학년 체육시간은 입시 준비를 위한 ‘자습시간’ 혹은 적당히 ‘노는 시간’으로 전용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장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체육시간 배당 기준 중 최소한의 기준만을 이수하도록 자체 교육과정을 편성하기도 한다. 체육교사는 심동적 영역의 목표만을 중시, 정의적 영역의 목표를 간과하고 있으며, 체육시간의 교내의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묵인하고 운동부에만 전념하는 체육교사 적지 않다(김상국, 2002).

또한, 사회에 만연한 주지주의적 교육적 풍토와 일반 교육학 학자들 및 교육관련 행정부서의 체육에 대한 몰이해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체육 수업 시수의 감소를 초래하였다. 특히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주당 2시간만을 필수로 하고, 고등학교 2,3학년은 체육을 포함한 음악 미술군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하도록 한 것은 체육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 생각된다. 그리고 그나마 확보된 체육 수업 시수 또한 체육의 가치에 대해 충분한 인식이 없는 학교장과 학부모들에 의해 입시를 위한 자습시간으로 대체되거나 학교행사를 위한 시간으로 대체되어 체육교육을 더욱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체육이 하나의 온전한 교과로서 차지해야 할 입지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체육교사의 전문성 및 책무성의 부족

교사는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이다. 역설적이지만, 학교 체육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교사라 할 수 있다. 교사가 체육 수업에 대한 책무성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학교체육의 위기를 조장하는 실질적인 원인이 된다.

체육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어떠한 내용이든 간에 성취감과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수업을 운영해야 하나,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생의 흥미나 요구, 개인차 등을 무시한 채 체육교사 중심의 전통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수업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윤희, 2003; 류태호, 1998). 교사의 체육 수업에 대한 책무성의 결여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교사가 학습지도, 적극적인 관찰과 피드백의 제공 등의 고유한 책무를 저버리고 학생들끼리 알아서 체육활동에 참여케 하는 자유방임형 수업을 하게 하는 등 파행적인 체육수업이 학교체육의 위기를 더욱 더 조장하고 있다(박명기, 1999).

교사의 전문성 및 책무성과 관련지어 교사 양성과 선발 체제 및 연수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된다. 우수한 체육교사 확보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는 체육교사 양성은 체육교

사 양성 기관의 난립, 교과 내용학 중심의 교사교육과정, 교과교육학 전공 교수의 부족, 교육 실습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편, 교사를 선발하는 관문인 임용고사의 경우 단순 암기 중심의 문제 출제, 단순한 실기 능력 검사 중심의 실기 평가, 수업 능력 평가 미비 등의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안양욱, 2003).

한편, 현직교사들에 대한 재교육 차원에서의 연수 체제도 교사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함양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즉, 현재의 체육교사 연수는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보다는 단지 자격취득이나 승진을 위한 점수획득에 필요한 형식적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김택천, 2002). 보다 구체적인 문제점으로는 형식적 운영, 행·재정적 지원 미비, 연수 내용 및 방법의 획일화 관련 기관의 연계체제 미비 등을 꼽을 수 있다.

(3)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상의 난맥

우리나라는 체육의 목표, 내용, 내용조직 체계, 지도 방법, 평가 방법 등을 규정하는 체육교육과정을 국가가 관장하여 제시하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다. 체육과교육과정은 1954년에 교육부령에 의해 제1차 교육과정이 공포된 이래 현행 7차 교육과정을 포함, 7차에 걸쳐 개정되면서 교과목의 명칭, 목표, 내용 편제와 시간 배당 등을 조금씩 달리해왔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체육교과에 배당된 수업 시수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은 지·덕·체를 겸비한 전인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이 지향하는 3가지 목표 영역 중 중요한 영역인 건강한 사람을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교과는 체육이 유일하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교육과정에 의해 체육과에 배당되어 있는 초등학교 주당 3시간, 중학교 1,2학년 주당 3시간, 중3, 고등학교 주당 2시간의 수업 시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더구나 체육은 육상, 체조, 수영, 단체운동, 개인운동, 무용, 체력운동, 이론, 보건 등 다양한 활동에 충분히 참여할 때만 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교과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행 교육과정에 의해 체육과에 배정된 수업 시수는 너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체육교육과정의 일관된 교육철학과 내용의 체계성도 미흡하다. 체육교육과정이 개편될 때마다 여러 가지 교육과정 모형들의 장점을 동시에 고려하다 보니 짜깁기식의 절충적 성격을 띄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의 체계성이 흐려지고 내용과 지도 방법간의 괴리가 존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년별로 가르쳐야 할 내용도 너무 많다. 소위 종합상자모형으로 불리는 백화점식 나열로 지나치게 많은 내용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교사와 학생이 부담을 느낄 뿐만 아니라 결국 수박 겉핥기식의 지도로 학생들이 제대로 할 줄 아는 스포츠 종목 하나 없다는 자조적인 비판을 받기도 한다.

교육내용의 비연계성이 체육교육과정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기도 한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동일한 영역의 내용이 동일한 수준으로 지도되고 있다(김승재, 1995; 박명

기, 1999). 김승재(1995)에 따르면, 매트운동의 ‘앞구르기’는 난이도의 변화 없이 그대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지도되고 있다. 다른 종목도 거의 마찬가지이다. 농구의 패스, 드리블, 슛 기능을 초등학교에서 배우고, 중학교에서도 또 배우고 고등학교에서도 반복적으로 학습되고 있다. 이 문제는 체육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유정애, 2001b).

(4) 학교체육의 열악한 교육 여건

체육수업은 다른 교과와 달리 수업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기계체조를 지도하려 할 때 무엇보다도 기구와 시설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학교에는 기계체조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유승희 외(2001)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관 보유율은 10%이하이고, 100m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이 나오는 학교는 42.8%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정부와 일부 언론에서는 ‘운동장 없는 학교’ 설립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체육수업에 있어서 시설과 용구가 중요한 점은 안전사고의 위험성 때문이다.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교사로 하여금 체육 수업을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요인이 된다. 또한 대도시 학교의 경우 다인수 학급의 특성상 좁은 운동장에서 여러 학급이 동시에 수업을 실시하므로 학습 공간과 교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한편, 학교체육의 발전을 위해 국가에서는 각 일선 학교에 1교 1 운동부 때로는 한 가지 이상의 운동부를 육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본래의도와는 달리 전문체육의 산실인 운동부 육성이 학교체육의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강신복, 2003b; 유정애, 2001a). 즉, 학교체육에 관련된 예산이 전교생을 위한 체육수업을 위해서 쓰여지기보다는 소수의 운동부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어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좋은 여건에서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로부터 소외를 받고 있는 것이다.

(5) 학교체육 전담부서의 부재

체육교육과 관련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교체육 행정체계의 문제점이다. 그간 학교체육은 정부 부서가 개편됨에 따라 수시로 주관 부서가 바뀌어 정책운용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해 오지 못해왔다. 과거 학교체육은 1961년 이전에는 문교부에 속해 있던 체육과에서, 1961년 이후에는 문교부 체육국 학교체육과에서 관장해 오다가 1982년 체육부가 창설되면서부터는 체육부 체육진흥국 학교체육과로 이관하여 관장하게 하는 등 학교체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엄연히 존재했었다. 그러나, 88올림픽 이후 역대 정부의 잇단 조직 개편의 소용돌이 속에서 학교체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사라져 버렸다. 즉, 제 6공화

국이 들어서면서 체육부가 체육청소년부로, 다시 문민정부에서는 체육청소년부가 문화체육부로, 국민의 정부 아래서는 문화체육부가 문화관광부로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학교체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지고 말았다.

현재의 학교체육은 교육부와 문화관광부의 이원화된 행정체제로 관장되고 있다. 교육부 학교보건 환경과에서 학교체육의 일반적인 사항을 관장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의 체육국 산하 체육지원과에서 학교 전문체육만 관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언뜻 보면 학교체육을 전담하는 부서와 전문 체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특성별로 구분되어 전문적인 체육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을 살펴보면, 학교체육을 전담하는 부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더 맞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명목상 학교 체육을 관장한다는 교육자치지원국 산하의 학교시설환경과는 학교 체육을 전공한 담당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처럼 확고한 교육 철학과 정책을 가지고 학교 체육을 이끌고 지원해야 할 중앙행정부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체육에 대한 장학기능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슬그머니 체육수업 시수가 감소되고, 체력장이 폐지되는 등 학교체육 위기의 원인이 되었음을 감히 단언할 수 있다.

IV.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의 전개 방향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데 있어서 체육의 역할과 기능이 긍정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점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결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은 학교체육이 얼마나 충실하게 정상화될 것인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는 학교체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이 전제된다.

그러나 학교체육의 정상화만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는 없다. 앞서에서도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학교체육이 사회체육 및 전문체육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즉, 학교의 체육 프로그램을 지역 사회에 파급시키고, 지역사회 역시 프로그램과 자원을 학교에 지원함으로써 학교와 지역 사회 모두가 호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처럼 학교체육과 사회체육의 연계를 강조하면서, 앞서 살펴본 청소년 문화의 특징과 학교체육의 현주소를 바탕으로 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향후 실천적 수준에서 학교체육이 전개되어야 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1. 학교체육에 대한 인식의 제고

어떠한 분야의 무슨 일이든지 간에 결국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할 때

모든 과업의 성사는 결국 인적 요인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안양옥, 2002). 오늘날의 학교체육이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면, 이는 일반인들의 체육에 대한 낮은 인식에서 기인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보다 일차적으로는 체육관련 주체들의 체육교육의 가치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체육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체육교사로부터 시작해서, 학교장, 동료교사, 학부모, 나아가 사회 전체가 체육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내외의 학교체육 운영 우수 사례 및 현황을 시청각 자료로 제작하여 각급 학교에 배포하거나 언론 매체를 통하여 소개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학교체육의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각종 체육관련 단체와 공조하여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한다.

둘째,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는 학교장 및 일반 교원 연수 프로그램에 체육교육 전문인적 자원을 초빙하여 체육교육에 대한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한다.

셋째, 학교에서는 자체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체육수업 모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체육수업 방법에 대한 토론 문화를 강화하는 동시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체육교과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는 교양 강좌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신체적으로 활발한 생활양식'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와 활동 과제를 개발한다.

2. 청소년들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한 체육 프로그램 및 지도방법과 모형의 개발

청소년 자신의 흥미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소외감은 청소년 문제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다양한 학습 요구, 특성, 배경, 능력 등을 가진 학생들의 학습 경험과 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학생참여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유정애, 2000). 이 경우에 무엇보다도 학생의 발달 단계 및 흥미가 최대한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지금까지의 학교 정과체육은 주로 특정 스포츠 종목의 기능 위주로 지도되어 왔다. 따라서 운동 기능이 우수한 학생의 경우에는 유리한 반면, 운동 기능이 부진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운동 기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예컨대, 제7차 체육교육과정에 반영된 스포츠교육모형 또는 이해중심 게임 모형을 현장의 여건에 맞게 변용하고 적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된다.

현재 스포츠교육학의 연구 성과에 힘입어 좋은 체육 수업을 위한 다양한 지도방법 및

모형들이 소개되고 있다. 대표적인 체육수업의 모형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신기철 외, 2003)

- 개별화 지도 모형: 미리 계획된 학습 과제의 계열성에 따라 학생이 자신의 수준을 맞추어 학습하도록 함으로써 학습 속도를 스스로 조절하도록 하는 지도 모형이다.
- 협동학습 모형: 학생들이 팀을 이루고, 모든 팀원이 함께 학습 목표에 달성하게 하는 지도 모형이다.
- 스포츠교육 모형: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실제적이고 교육적이며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을 유능하고 박식하며 열정적인 스포츠인으로 육성하려는 모형이다.
- 이해중심 게임 모형: 운동 기능이 부진하여 체육활동에서 소외될 수 있는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운동기능 중심 보다는 학생의 흥미와 게임의 전략에 초점을 맞춰 게임을 지도하는 모형이다.
- 동료교수 모형: 학생들이 서로 교수자와 학습자의 역할을 교대해서 수행함으로써 학생을 수업의 주요 자원으로 활용하는 모형이다.
- 탐구수업 모형: 학생의 문제 해결력 신장을 위해 개념 중심, 질의 응답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지도 모형이다.

3. 정과체육활동 내용의 질적 개선

학교체육은 정규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정과체육활동과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에 청소년들이 자발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과외자율체육활동으로 구분된다. 특히 정과체육 시간에는 가능하면 한 학생이 평생 동안 즐길 수 있는 신체활동 종목이 강조되어 가르치도록 한다. 예컨대, 에어로빅댄스, 스트레칭이나 웨이트트레이닝, 골프, 테니스, 스키, 수영 등과 같은 평생 스포츠 종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의 건강 수준을 판단하고 그에 부응하여 자신의 운동 수준과 방법 등을 스스로 처방하여 지속적이며 적극적으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한편, 정과체육을 지도할 시에는 신체활동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효과 측면을 두루 이해토록 강조해야 한다. 또한 신체적으로 활발한 생활양식을 지속적으로 영위해 나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운동에 대한 자아평가, 목표설정, 의사결정, 자아극복 등에 대한 능력도 지닐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체육은 청소년에게 필수 교과목으로, 가능하다면 일정 시간동안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매일 체육' 체제로 이수토록 하여야 하며, 그 프로그램 운영은 평생체육의 관점에서 체계화하여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은 무엇보다 학교체육의 정책이 일관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될 때 효과

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약 1만여 이상의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교체육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면 정부 중앙 부서에 체육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4. 과외자율체육 활동의 활성화

정과체육과 더불어 과외자율체육 역시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최근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외부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체육 및 스포츠 활동을 경험하게 하는 특기 적성 교육활동이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과외자율체육 활동은 정과체육활동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활동을 경험하게 하고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특히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특성 때문에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청소년의 신체 건강은 물론 평생 체육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들이 특기적성 교육활동 또는 방과 후 체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체육교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스포츠 동호인 단체의 지도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여러 스포츠 클럽을 조직하여 방과 후나 주말에 운동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사회로부터 스폰서십을 구축하는 것도 과외자율체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때로는 한 두 차례의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학생과 교직원 또는 학부모까지 함께 즐겨 참여할 수 있는 신체활동을 구상하는 것도 과외자율체육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오래 걷기 또는 거북이 마라톤 대회, 교내 조깅대회, 아침 0교시의 전교생 음악 집단체조 또는 음악 줄넘기 운동 등이다. 전교생 자전거 투어, 하이킹, 등산 대회와 같은 야외 활동 또는 주말에 학부모와 함께 '체육활동의 밤'과 같은 특별활동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과 공간의 확충 및 활용 극대화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체육시설과 공간의 절대 부족이다. 특히 학교체육 시설의 열악성은 심각한 수준에 있다. 이러한 시설·공간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 투자와 그 활용의 극대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모든 학교는 최소한 체육관 실내 수영장이 확보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존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모든 운동시설·공간은 운동 상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사회 주민에게 개방하는 대신 지역의 체육 및

여가 시설이 학교체육활동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연계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V. 결 론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주지주의적 교육 풍토로 왜곡된 학교교육의 구조 안에서 과중한 학업 부담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와 욕구 불만을 떠안은 채 지내며, 그러한 스트레스와 욕구불만을 대중문화나 TV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해서 해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같은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은 왜곡된 학교교육과 병립하여 청소년 문제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즉,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 것은 결국 청소년을 전인으로 성장시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청소년의 특성과 그들의 문화에 비추어 볼 때, 학교 교육활동 중에서 그들의 건전성을 육성하는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은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라는 표현처럼 체육교과가 그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을 건전하게 기르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학교체육을 비롯하여 체육의 위상 제고 및 활성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 실천적인 노력은 가능한 청소년의 특성과 문화를 바로 이해하고, 현행 학교체육의 문제점을 살피서, 현실적으로 개선이 가능하도록 학교체육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체육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그 정체성과 위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시점이다. 본고에서 지적한 한와 같이, 체육교육에 대한 왜곡된 인식, 체육교사의 전문성과 책무성의 결여, 체육교사의 양성 및 선발체제와 현직교사 재교육의 문제,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상의 난맥, 학교체육의 열악한 교육 여건 등이 학교체육의 정상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의 전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체육에 대한 인식의 제고이다. 학교체육이 단순히 노는 시간이 아니라 청소년 자신의 자아 개발 및 인격 완성을 위한 교육 활동으로 인식시키는 홍보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단편적인 홍보 활동을 지양하고 다각적인 홍보체계를 활용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들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한 체육 프로그램 및 지도방법의 개발이다. 성, 연령, 신체적 특성과 같은 청소년 개개인의 수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 보급함으로써 청소년의 왕성한 활동 욕구 및 표현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셋째, 정과체육활동 내용의 질적 개선이다. 정과체육 시간에는 가능하면 한 학생이 평생 동안 즐길 수 있는 신체활동 종목 등을 반영하도록 한다. 또한 신체활동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효과 측면을 두루 이해토록 강조해야 한다.

넷째, 과외자율체육 활동의 활성화이다. 과외자율체육활동은 체육활동의 경험을 심화

시켜주는 동시에 평생 체육의 기틀을 마련한다. 따라서 일부 종목에 한정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실시되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스포츠 동호회와 연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과 공간의 확충 및 활용 극대화이다. 현재의 공공 체육시설과 민간 체육시설을 청소년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저렴하게 책정하며, 이용 시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신복(2002). 국민체육 진흥에 있어서 기초교육의 제 문제. 제40회 체육주간기념 제21회 국민체육진흥세미나 국민체육에 있어서 기초교육의 제문제. 한국체육학회, 15-33.
- 강신복(2003a). 체육교육 위상 정립을 위한 발전 방안. 체육교육의 위상정립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개교 117주년 및 체육과학대학 창립 58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논문집, 3-17.
- 강신복(2003b). 학원 스포츠의 개혁: 의식전환과 제도 개선. 공부하는 학생선수-과연 불가능한가? 학원체육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
- 구창모(1999). 스포츠와 청소년 비행. 1999년도 제3차 한국스포츠사회학회 정기세미나. 국민생활체육협의회(1997). 청소년의 체육활동 욕구 및 실태 조사.
- 권이중(1992). 청소년과 교육 병리. 양서원.
- 김대연(2001). 한국 청소년의 의식구조와 가치관 교육의 과제. 한국의 청소년문화. 한국청소년문화학회, 89-119.
- 김상국(2002). 국민체육에 있어 중등 체육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40회 체육주간기념 제21회 국민체육진흥세미나 국민체육에 있어서 기초교육의 제문제. 한국체육학회.55-80.
- 김승재(1995). 학교체육의 제 문제와 효율적 해소 방안. 학교보건, 2(1), 229-235.
- 김영철(1999). 청소년 놀이문화와 교육. 교육인류학연구 2(1), 15-35.
- 김윤희(2003). 운동기능이 낮은 학생의 체육수업 체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0(1), 57-76.
- 김진경(1997). 학교교육: 존재 자체의 위기 그리고 대안. 교과연구, 통권 제11호. 통일시대 교육연구소.
- 김찬규(2001).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가와 사회적 지지 및 스트레스의 관계.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택천(2002). 현행 교원연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스포츠교육학회 춘계 세미나.
- 류태호(1998). 교육의 위기와 체육교사의 전문성. 한국체육학회보, 제72호, 15-18.
- 류호상(1997). 학교체육을 정상화하자. 한국체육학회보, 22-23.
- 문화체육부(1994). 청소년 현대 수련거리 개발 연구. 문화체육부.
- 문화체육부(1997). 청소년백서. 문화체육부.
- 박명기(1999). 학교체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 스포츠과학, 68, 8-16.
- 서울대학교사범대학교육연구소(1996). 신세대의 이해: 그들의 의식과 유형. 삼성복지재단.
- 신기철 외(역)(2003). 체육수업모형. 대한미디어.
- 안양욱(2003). 우수교사, 합리적인 선발과정으로 가능. 시민체육, 2003년 4월호. 서울

특별시 체육회

- 유승희 외(2001). 학교체육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 유정애(2000). 교사 전문성 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7(2), 41-59.
- 유정애(2001a). 초등학교 사례 연구보고서. 학교교육내실화방안연구(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유정애(2001b). 중학교 사례 연구보고서. 학교교육내실화방안연구(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유정애(2002). 체육과 수업 내실화 방안. 학교 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II): 교실 수업과 생활 지도의 내실화 방안 모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02-12.
- 이건만(1999). 학교교육과 청소년 저항문화에 관한 연구: 청주지역의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제37권, 29-61.
- 이제홍(1994). 청소년의 놀이 및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연구. 스포츠과학논총. 고려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79-95.
- 이제홍·백광(1995). 청소년의 건전 여가활동을 위한 방안 모색.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3권, 71-82.
- 이종재(2001). 학교교육의 실상 분석 및 공교육 내실화 방향과 과제.
- 이흥구·박성준(1999). 청소년의 여가활동 참가와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한국레크레이션교육학회지 제1권 제1호, 41-50.
- 임종호(1999). 청소년 체육의 활성화 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11호, 589-598.
- 조미혜(2003). 모스던의 체육 교수 스타일. 대한미디어.
- 최훈(1995). X세대 생활세계의 분석, 서울 YWCA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1995) "X세대 문화를 알아본다", 서울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주최 세미나 자료집, 10-12.
- 한국청소년개발원(1993). 청소년활동론. 한국청소년개발원.

<Abstract>

A Discourse on the Normalization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for Nurturing the Youth Wholesomely

Sinbok Kang* · Kicheol Shin**

Recently the school physical education comes to a crisis as the knowledge-based social atmosphere culminates and the public education system is on the ebb. Although the fact that an approach through physical education program is more effective in solving the youth problems educationally was acknowledged by much of related research, the current social atmosphere and educational climate give rises to anxieties in that the recognition and support for the physical education program in school is gradually degraded. So it is urgent to normalize the school physical education in order to nurture the youth wholesomel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ope for developing tasks of the school physical education, which could contribute to nurturing the youth soundly.

For this purpose we examine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youth. We focused not only on diagnosing realities of the school physical education, but also on understanding the problems to be solved. As a result, we pointed out the problems which hamper the normalization of the school physical education like the following: (1) a distorted view of the physical education; (2) a lack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expertise and accountability; (3) problems in physical education teacher education; (4) troubles in constructing and managing the curriculum; (5) poor condition in physical education. Based on these problems, we presented directions for the further development and tasks as follows: (1) enhancing the recognition of physical education; (2) the development of physical education program and teaching method which consider the students' interest; (3) the qualitative improvement in the content of regular physical education; (4) activating the extra-curricular physical activities; (5) the expansion of physical facilities and space.

* Professor,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